

# 농촌마을을 환경교육의 거점으로

##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남원매동마을 만들기 사업과 빈집 캠프

박훈(전북의제21)

□ 사업기간 : 2004년 3월 ~ 현재

### □ 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생태마을은 농촌이나 도시의 마을에 살고 있는 구성원이 환경과 조화롭게 생활을 유지하며 환경적 가치에 의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최근 자연 생태와 조화로운 마을을 만들어 농촌 관광 및 수익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권장 시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마을과 환경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듯이 마을의 생활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 하지 않은 무리한 환경 계획은 특정 이미지나 '트렌드'에 마을의 삶을 꺾어 맞추는 한계를 낳기도 했다. 오류의 시작은 마을을 '바꿔 놓아야 한다'는 강박적 스트레스에서 기인한다. 이런 강박적 태도는 (자연생태계와 조화되는 삶의 양식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전통적인 삶의 구조, 당면한 마을의 관심과 역사적 연관성 등에 대한 자세하고 자연스러운 접근이 용이치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을을 대상으로 수행된 과제의 결과가 마을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갱신하지 못하고 전시화 되어 버린 한계를 들 수 있다. 이는 예초 계획의 지향과 가치를 마을 주민과 공유하지 못한 결과이다.

본 과제는 마을 주민의 삶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주변 환경을 함께 알아보고, 마을의 역사 문화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며 마을의 미래에 대해 구상해 보고자 한다.

마을 디자인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공통적 가치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스스로 마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빈집 캠프라는 실험적인 모델을 통해 환경교육과 체험교육의 접목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게 될 것이다.

첫째, 마을 공동체의 협조와 참여 속에서 마을을 디자인한다.

둘째, 마을의 역사 문화적 자원과 생태환경을 파악한다.

셋째, 에너지, 생태, 문화, 역사 등의 콘텐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하는 디자인 요소를 구성한다.

넷째, 빈집 캠프등을 통해 도시지역과의 네트워크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수용한다.

□ 참여그룹

○ 참여그룹 : 공공작업소 심심,전북의제21,전북생명의숲,남원매동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추진위원회

○ 참여그룹의 역할 설명

- 1.행정(매동마을 이장)-녹색체험마을의 추진
- 2.시민사회-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제공
- 3.마을주민-마을전체주민과의 이견조율 및 협의

□ 소요예산(방법)

○ 총사업비 : 2,000만원

○ 사업비구성내용 : 마을다큐제작,마을이야기제작,장수사진촬영,야밤놀이,숫대제작,빈집캠프

○ 재원조달 방법 : 전북의제21,교보생명지원

□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속에서 마을의 가치를 컨테츠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사업을 실시하여 마을의 잠재적 자원을 찾아가고자 한다.

도시의 문화 컨테츠 와 농촌마을이란 공간이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도농교류의 대안을 실험하고 찾아 가고자 한다. 단지 유기, 생태 농산물의 생산지나 먹거리의 해결장소로서의 농촌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문화-경제적 복합형식으로써 새로운 도농교류의 패턴을 시험해보고자 하며, 여러 문화 행사를 통한 새로운 인적자원들과의 유대를 만들어가고 나아가서는 인적-문화적역량의 유입을 적극 유치해 문화 공동체로서의 장을 열어가고자 한다.

마을 가꾸기의 방향은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자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타당성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의 실험을 거쳐서 정해져야 하며, 마을속에 내재된 주민들의 고유가치를 찾아내고 이를 통한 마을 가꾸기의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의 교육·문화적 빈곤함을 고려하여 빈집을 통한 마을의 문화공간 만들기과 도시민과 마을사람들이 공유하고 함께하는 장소로서의 가능성 모색하고자한다.

미술, 영상, 건축, 공연, 문학 등 여러 분야의 작가 및 예비 작가들이 빈농가에서 진행하는 작업 및 전시 복합 놀이 공간 창출을 통해서 이곳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마을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원불교 납골공원조성과 연관된 마을의 반대 운동중에 발생한 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마을사업의 실행의 필요성을 느껴 성급한 마을 건축환경개선의 길로 접근하지 않고 3차년도에 걸쳐서 마을주민의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의 축제 및 놀이의 장으로써의 마을디자인사업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외부 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의 자원을 현실속에서 찾아 보고자한다.

일성콘도 및 지리산 하계 관광객 유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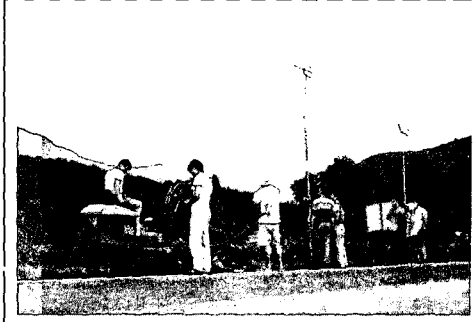
예 : 산책로 및 체험프로그램, 전시관

마을소득사업과 마을디자인 사업의 연계점 찾고자 한다.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잃어버린 마을이란 공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공유하고자한다. 이를 위한 올 여름 첫 여름캠프는 <빈집에서 놀기>라는 테마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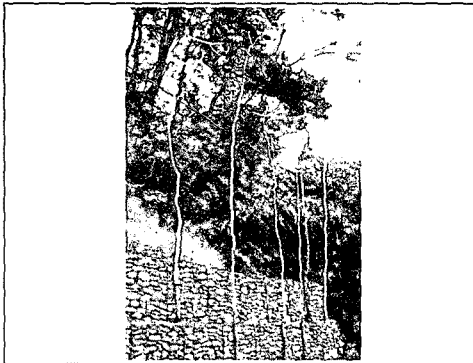
< 솜대제작 1 >



< 마을앞 국도변 솜대 설치작업 >



< 솜대제작 2 >



< 마을 진입로변 솜대설치완성 >



< 토투 만들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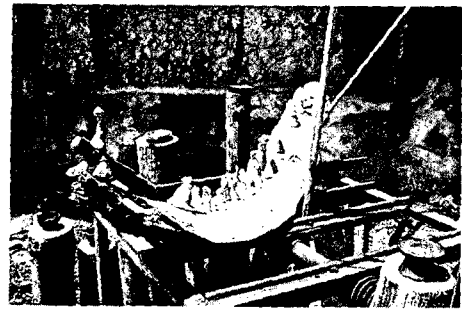
< 훌 피리 만들기 1 >



< 훌 피리 만들기 2 >



< 가마 만들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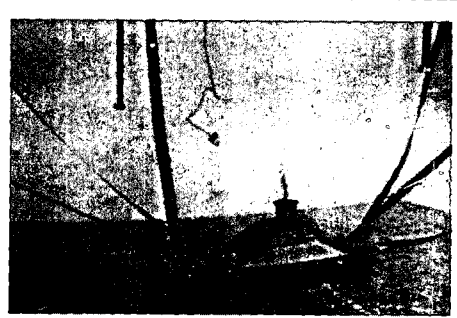
< 빈집설치전-소영권 -1 >



< 빈집설치전-소영권 부분 >



< 빈집설치전-김미향 >



< 빈집설치전-이중재 >



< 페이스 페인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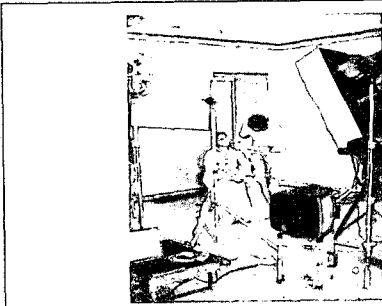
< 벽화작업 - 1 >



< 벽화작업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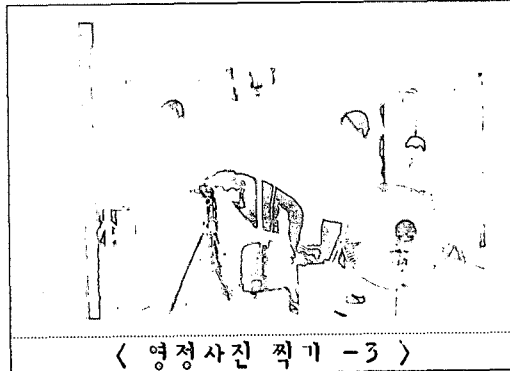
< 벽화작업 - 3 >



< 영정사진 찍기 -1 >



< 영정사진 찍기 -2 >



< 영정사진 찍기 -3 >



< 영정사진을 찾아가는 모습 >



< 다큐멘터리 작업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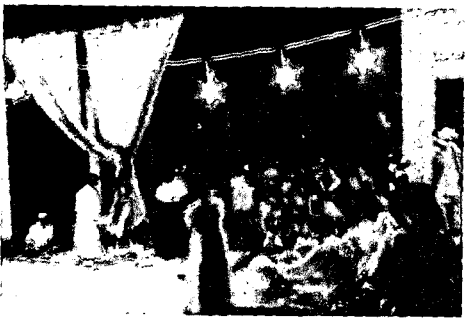
< 다큐멘터리 작업 -2 >



< 다큐멘터리 작업 -3 >



< 다큐멘터리 작업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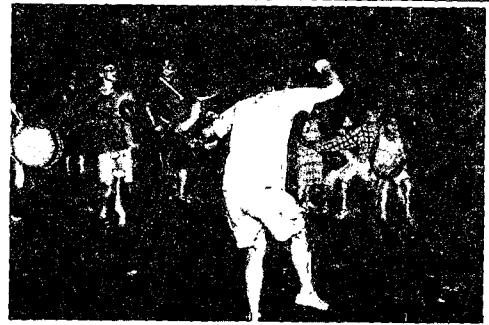
< 8월 3일 야밤놀이 >



< 8월 10일 야밤놀이 -2 >



< 8월 10일 야밤놀이 -3 >



< 8월 10일 야밤놀이 -4 >



< 빈집캠프 - 안전한 먹거리 교육 >



< 빈집캠프 - 마을생산 농산물로 식사를 >



< 빈집캠프 - 모심기 >



< 빈집에서 참가자들과 >



< 빈집캠프 - 염소동산 >



< 빈집캠프 - 빈집마당에서 놀기 >



< 빈집캠프 - 한밤의 빈집 탐험 >



< 빈집 여름 캠프 >

□ 사업 추진과정의 애로사항(갈등)

- 농촌마을 어른신들의 고령화와 마을 주민간 이해관계가 복잡함
- 생태적인 마을조성의 당위성 설명이 너무 어려움
- 실질적인 농민 보상체계의 강구
- 주민 중심의 프로그램 진행 능력 부재
- 편의시설에 너무나 익숙해진 도시의 참가자들
- 민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준비 부족

□ 추진성과 및 효과

- 사업 결과
  - 1차적으로 녹색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에 2억정도의 예산 확보
  - 도시의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의 농촌마을만들기의 관심 고취
  - 도시의 젊은 전문가들과 농촌의 어른신들의 교류방법에 대한 몇가지 노하우취득
  - 농촌 마을의 자원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견해 제공
- 자체 평가
  - 매동마을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반절의 성공이라는 평가
  - 마을주민들의 생태적인 마을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 민박,참가자들 대상 농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외 수익구조실현의 가능성 제시
  - 농촌 소규모마을의 역사적 단절에 대한 위기감 공유 중요